

1

신뢰와 불신

- 배울 말 씀** : 민수기 1:1-54, 13:1-14:38
- 읽을 말 씀** : 민수기 14:26-38
- 외울 말 씀** :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0).
- 메인 아이디어** :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 포인트** :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라!
- 목표** : ❶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됨을 안다.
- ❷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어린이용 교재



설 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이 인구조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이동과 파악이 쉬운 행진 배열을 갖추는 동시에 군사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 인구조사의 특징은 많은 중간 책임자를 두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내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들이 정복할 땅을 살펴보게 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온 정탐꾼들은 상반된 보고를 했다. 열 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거주민이 아주 강하여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고, 다른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열 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거주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상반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약속에 대한 불신에 대해 하나님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죽는 벌을 내리셨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1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자.

핵심 단어

가나안(약속의 땅) | 히브리어로 ‘법률’ 혹은 ‘평평한 땅’을 의미한다.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지역의 이름과 부족의 이름이 되었다. 가나안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막내아들이다(창 10:6). 가나안은 열한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각 부족의 조상이 되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땅(창 12:1)이며,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애굽에서 나와 다시 돌아올 땅(창 15:16)이라고 약속하신 땅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차지할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열거하심으로 땅의 지역까지 확증하셨다(창 15:18-21).

인구조사 | 민수기란 책 이름이 나오게 된 연유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및 전투를 위해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게 하셨다. 인구조사를 통해 비로소 이스라엘은 그 규모를 드러낸다.

하지만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민수기 1, 26장)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기성세대는 불신으로 인해 사십 년의 방황 속에서 죽어야만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의 고생 속에서도 새로운 세대를 수적 차이 없이 일으키신다.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여러분 교재 왼쪽 맨 위에 있는 질문지를 보세요.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두려움’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잘 읽은 다음, 나는 어떠한지 생각하여 알맞은 것에 표시해주세요. (시간을 준다.)

☑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두려움에 대한 질문들을 읽고 나는 어떠한지를 표시해보세요.

-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렵다. (그렇다/아니다)
-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두렵다. (그렇다/아니다)
- 따돌림당하는 친구와 어울리다가 나도 따돌림당할까 봐 두렵다. (그렇다/아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두렵다고 표시했나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1.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확인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이 살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거룩하게 되는 ‘제사’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는 ‘절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무 살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세어라.” (민 1:2-3)

하나님은 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처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있게 가나안 땅으로 잘 이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할 전쟁도 잘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스무 살 이상인 남자들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스라엘 보고서’를 보고, 성경을 찾아 답을 써보세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는 몇 명인가요?

(대답을 듣고) 그래요, 스무 살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는 총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여자와 아이들을 합해 백이십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모세를 따라 이동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열두 정탐꾼을 뽑았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열두 명을 뽑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조사하게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보고서를 보세요. 정탐꾼들은 누구였고, 정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정탐꾼 명단 (민수기 13:4-16)	정탐해야 할 사항 (민수기 13:17-20)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여호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나비, 그우엘 총 12명	•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탐지하고 •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스라엘 보고서 2번 정탐 준비를 보고, 오늘 교회에 가장 일찍 온 (이)가 가나안에
서 ‘정탐해야 할 사항’을 읽어주세요.

(읽은 후) 잘해주었어요.

2. 가나안 정탐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완성한다.

열두 정탐꾼은 사십 일 동안 가나안 지역의 땅들을 조사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주신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나요? (대답을 듣는다.)

가나안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포도, 석류, 무화과 등이 탐스럽게 열리는 곳이었지요. 정탐꾼
들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따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열 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탐꾼들의 의견이 갈린 것이지요. 원형 그래프에 가나
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 정탐꾼의 숫자만큼 색칠해주세요. (시간을 준다.)

정탐꾼 열 명은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민수기 13장 33절을 찾아 읽고, 보고서를 완성해주세요. (시간을 준다.)



• 열 정탐꾼의 보고 (민수기 13:33)

“우리는 가나안에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을 보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키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을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대답을 듣는다./ 정답: 거인들, 메뚜기)

정탐꾼 열 명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기 때문에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에 사는 거인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정탐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2절을 읽고 빈칸을 완성해주세요. (시간을 준다.)

•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민수기 14:1-2)

- 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 ② 모세와 아론을 원망 했다.
- ③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대답을 듣는다./ 정답: 원망)

정탐꾼 열 명의 말을 듣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큰 소리로 울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은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9절을 찾아 읽고, 두 정탐꾼의 보고에 나오는 빈칸을 완성해주세요. (시간을 준다.)

• **두 정탐꾼의 보고** (민수기 13:30, 14:9)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 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대답을 듣는다./ 정답: 취합시다, 두려워하지, 먹이, 여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민 14:24).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3.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모두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9-30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빈칸을 완성해주세요. (시간을 준다.)

- **갈렙** 과 **여호수아** 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민수기 14:29-30).
- 정탐한 날 수인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민수기 14:34-35).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대답을 듣는다./ 정답: 갈렙, 여호수아)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



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크신 하나님을 두려운 상황보다 더 작게 보았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문장의 빈칸을 완성해주세요. (시간을 준다.)

-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거인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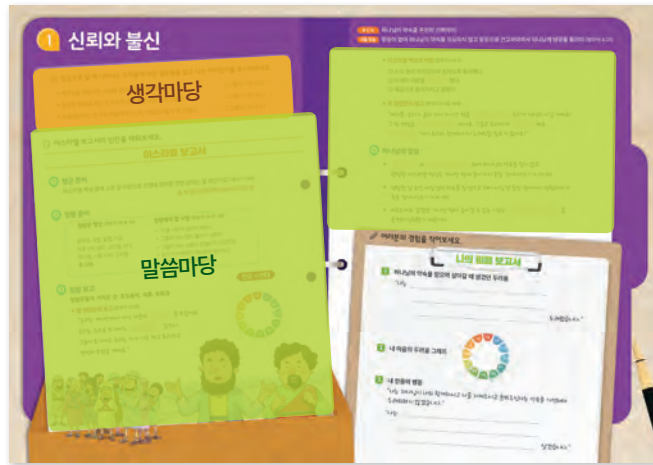




D

다이나믹 클래스 진행 시, 영상을 보지 못한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각마당부터 시작하는 레귤러 클래스로 진행한다. 모두 영상을 보고 왔을 때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 ① 조 편성 : 어린이들에게 손바닥과 손등 중에 선택하여 내밀게 하고 그에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 조로 나눈다.
- ② 조별로 토의를 한 후 조별 대표가 발표한다.
토의 내용 : 왜 정탐꾼들의 반응이 달랐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과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 ③ 배움마당으로 이어간다.



열 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렵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해요. 저를 따라 다 함께 외쳐보세요.

포인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라!”



‘나의 믿음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러분, 오늘 공과공부를 시작하며 살펴보았던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두려움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 생겼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던 경험을 나의 믿음 보고서 첫 번째 항목에 적어주세요. (시간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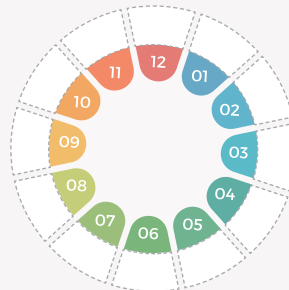
1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 생겼던 두려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따돌림당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나도 따돌림당할까 봐, 싸우고 있는 친구를 말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경험하곤 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처한 어려움이나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했나요? ‘나의 믿음 보고서’에 있는 원형 그래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나의 두려운 마음은 어느 정도였는지 1-12까지의 수치 중에 해당되는 칸까지 색칠해주세요. (시간을 준다.)

2 내 마음의 두려움 그래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열 정탐꾼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난한 거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곧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할지를 적어 보고 이야기해주세요. (1번에 기록했던 내용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적게 한다.)

3 내 믿음의 행동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주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따돌림당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해요. 앞으로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해요.

㉨

조별로 아래 질문에 대해 토의한다.

-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 하는데 왜 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믿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해요.)
-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잘 기억하도록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해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라!

